

전주시 시민편의 규제개혁 '두각'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수상 불합리한 조례 정비 등 높이 평가

전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시민 편의에 선 규제개혁을 잘 수행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 지방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합동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국무조정실의 11대 분야와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사례 100선 등에 따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에 집중 중앙부처 법령 규제 개선 건의를 지속 추진했다. 또 정량지표 외에도 △중앙부처 법령개선 반영 사례 △자치법규 개선 반영 사례 △인·허가 행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 사례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사례 △기업현장 애로 발굴·해소 사례 등 정성지표에 부합하는 우수

사례 발굴·개선에 역량을 집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시는 부서별 조례·규칙의 제·개정 추진 일정이 달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 가족사육에 관한 조례 등 정비대상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 절차를 일괄 이행(입법방침 단체장 일괄결재, 제·개정안에 대한 일괄 입법예고)해 규제개선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탄소관련 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탄소 특화 창업보육센터 건립 추진 시에는 건립부지가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상 공장 건축만 허용이 가능해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 건축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40여일 내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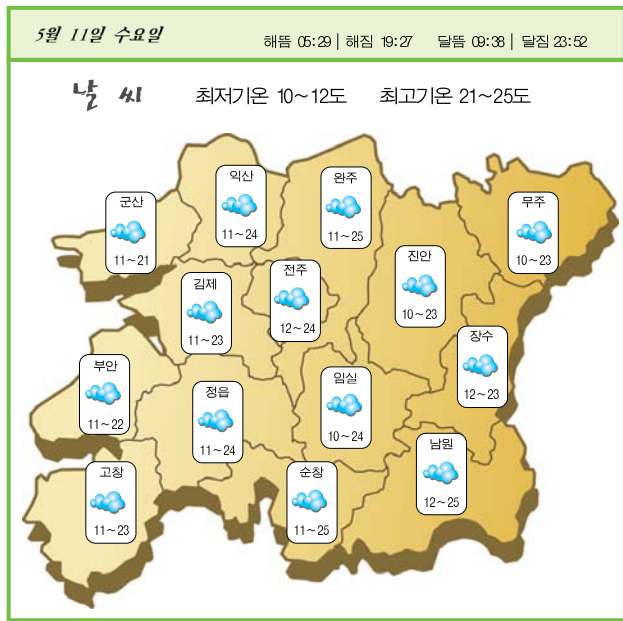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일반산 업단지계획 변경을 수립·승인·고시해 창업보육센터 건축을 적기에 추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제27차 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 조봉업)를 개최하고 2016년도 규제장비 종합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인건을 승인했다. 올해 첫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2016년 규제개혁 중점 추진방향을 시민체감형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불편 해소로 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현장규제 해소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 △공직자 행태 규제 개선 등 4대 전략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는 규제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 한해 시민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해소하는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기업 및 단체, 전통시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수렴 및 건의과제 해결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또, 규제개선 사례의 홍보를 강화하는 물론, 취약계층·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러 도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2015년 지방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시민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생활 속 규제개선과제 발굴·개선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생활분야까지 규제개혁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불편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시민 설문조사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

전주시는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전주시민 500~1,000여명과 전라북도 체육관련 동호회 30여개를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항목은 △기존 경기장 및 야구장 이용경험 △신설될 경우 이용 계획 여부 △신설될 경기장 이용 의사가 있다면 그 이유 등 10여개 항목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7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 1종 육상경기장 1만5000석을 증축하고

인근 부지에 8000석 규모 야구장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확보한 상태다.

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의 노후(건립된 지 36년경과)로 인한 유지보수비 과다소요와 시설기준 변경에 따른 1종 육상경기장 부재 등의 이유로 꼭 추진되어야 할 전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며 "지역 체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로 100세 시대에 대비해 건강하고 젊은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만큼 설문조사에 적극적 응답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정부 '열정페이' 근절 나선다

정부가 청년의 열정을 핑계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근절을 나선다. 청년 노동자의 열정페이 및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에 집중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인력을 늘리고 상담시간을 연장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또 익명으로 근로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을 고용부 홈페이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에 마련해 5~7월 집중 운영한다.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근로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점검을 통해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주기자



옥시제품 쓰지 않겠습니다

9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 효자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기습기밀조제 유해물질 논란을 빚고 있는 옥시 제품 불매를 선언한 가운데 김보금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박한철현재소장 전북대특강

10일 박한철 한법재판소장은 전북대학교에서 모험 특강을 열고 '행복 추구는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권리가 아니라 "많은 청춘들이 고민을 지우고 행복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500여명의 전북대 신입생 및 로스를 학생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에서 박 소장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헌법재판 제도 절차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소장은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는 개인의 행복이라는 가치가 우리 헌법의 최고의 목표이자 인생의 가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용주 기자

창의융합 과학큰잔치 21일 전북과학교육원 개최

과학뮤지컬·첨단과학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도내 과학도를 위한 '창의융합과학큰잔치'가 열린다.

1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 창의융합과학큰잔치가 오는 21일 전북과학교육원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뮤지컬, 첨단과학 체험마당, 각종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창의융합과학큰잔치는 생활과학, 체험과학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과학적 요소를 제공해 과학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축제를 통해서 기초과학 원리를 이용한 놀이, 실험, 체험, 만들기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개막식에는 이외무대에서 에어샷 CO₂ 퍼포먼스가 연출되며 실내행사에는 과학뮤지컬 공연과 로봇, 아두이노, 3D프린트, 드론, 가상현실체험 등 첨단과학체험시간이 준비된다.

/고민형기자

전주 원동초 등 3개 교 다목적체육관공모 선정

도내 전주 원동초 등 3개 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이 확정됐다.

1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원동초등학교와 정읍 보성초, 완주 소양서초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 공모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이들 3개 학교는 각 3억9,000만 원의 건립비를 지원받게 됐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용은 문화체

육관공부가 체육기금을 통해 30%를 지원하고 도교육청 50%, 지방자치단체가 20% 가량을 부담한다.

이에 3개교 체육관은 오는 2017년 착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관계자는 "학교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강당 겸용 체육관 형태를 갖추게 되며 정규 수업시간 외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완주군
WANJU-GUN

다함께 일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군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새로운 소통, 함께 만드는 완주

제52회 완주군민의 날

제52회 군민의 날

일시 : 2016. 5. 12. 목, 14:00~

장소 : 완주군청 문예회관

프로그램 : 축하행사, 완주군민대상 시상
공적 동영상 상영, 군민현장 낭독 등

축하공연

KBS 국악한마당

사회 : 가애란 (KBS 아나운서)

출연자 : 소리꾼 남상일(판소리), 김혜란(구름검무), 박정옥(배뱅이굿), 서정미(대금), 아리수(민요) 등

박정옥

서정미

남상일